

지자 우선 우리집에 오시면 그동안 내 몫 冊 없느냐고 아주 高壓的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가실 때에는 무엇 무엇 付託이 으레히 많았다. 그동안 充分한 심부름을 못해 드린것이 未安스럽다. 天性으로 學問을 즐겨 위하는 洪先生은 特히 扶餘人으로서 百濟史 속에 살아 오셨다. 古蹟調査나 史料採訪에는 이른바 千里를 멀다 하지 않고 부지런히 쫓아 다니셨다. 그동안에 先生의 新發見이 참 많다. 解放 다음에 黃先生과 같이 扶蘇山 기슭에 日本人이 神宮 짓는다고 모아놓은 石材 속에서 百濟의 砂宅智積의 發願碑와 瑞山의 百濟三尊磨崖佛의 發見 扶餘를 中心으로 布陣된 百濟山城의 實查 그 외에 扶餘地方에서 나온 遺物의 採集은 不知其數이었다. 瑞山磨崖佛을 發見할 때에는 나도 同行하였다. 普願寺 址에서 걸어 나오는데 相當히 疲困해서 잔디밭에 잠깐 쉬었다. 구경이나 난 모양으로 우리를 보고 있던 少年보고「이 近處 부처님이나 무엇 안계시냐」고 洪先生은 물었다. 시골다니면 으레히 해 보는 問答이었다. 그 少年은 저기 바위 뒤를 돌아가면 하나 있다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洪先生은 勇躍 그 少年을 앞장 세우고 그것을 가보기로 하였다. 우리는 대수로운것 있을라고 생각하면서 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였다. 한 동안 있다가 돌아 오신 洪先生은 上氣하여 굉장한 百濟佛體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나중에 洪先生이 적어 오신 寫眞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왼 쪽의 菩薩立像은 日本의 法隆寺의 夢殿의 秘佛로 삼고 있는 것과 어찌면 똑 같을까 文化의 傳播, 傳授의 모습이 이렇게 刻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神奇한 일이었다. 나는 數年 若輩이지만 研究心の 旺盛에 있어서 洪先生이 더 젊으시다.

清貧을 甘受하면서 數十年 동안 한 길을 걸어 오신 洪先生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珠玉을 쥐고 계시다. 回甲이라는 것이 無色할 지경으로 까만 美髮을 가진 洪先生은 더욱 젊어져 가시는 것 같다. 이 후 몇十年 百濟研究에 더 많은 成果를 거두실 것을 確信한다.

洪先生과 百濟文化

李 興 世

옛 泗水城터에 자리잡은 古色蒼然한 扶餘博物館에는 百濟人의 일과 精力이 깃들인 高貴한 寶物과 稀有한 遺品이 滿堂하고 整然하게 配列되어 있어 外觀에서 失望을 가질 뻔 했던 觀客들에게 보람찬 勝物感을 주게 한다.

이 唯一한 百濟文化의 殿堂을 守護 간직하며 더 찾고 發掘하여 그 빛(光)을 더 하기에 畢生의 努力을 기울이는 百濟古美術의 人間文化財가 있으니 그가 곧 扶餘博物館長 洪思俊先生이다.

올해 回甲을 맞는 先生은 바로 百濟의 古土인 扶餘에서 誕生하신 분으로 幼時부터 史學과 地文에 先天的인 素質을 타고나자 國破된 以後 長久한 歲月에 風塵雨洗하여 忘却의 地境에 이른 百濟文化를 되찾고 이를 빛내어 後世에 보람찬 歷史를 물려주고자 남다른 苦心과 研究로서 衆人의 追從을 不許하는 考古美術에 造詣를 쌓으신 것이다.

五尺短身の 아담한 體身に 半白의 年輪을 쌓은 先生은 언제나 學者의 人 風貌가 넘치고 水中如玉 같은 靑眼은 類別히 슬기로운 才致를 뽐는다.

先生은 一九四五年 九月以來 十六個星霜을 當地 博物館長으로 在任하며 解放後의 混亂期에서도 既存 遺物의 守護와 新文化財發掘에 多大한 業績을 남겼었고 一九六一年 三月에 慶州博物館長으로 榮轉했으나 一九六三年 四月에 다시금 現職으로 還任의 榮에 接한 바 이거니와 再度 赴任以後부터는 地方衆意에 報答하는 見地에서 한층 더 熱誠을 加하여 古刹址의 發掘 博物館의 擴張은 勿論 一片의 기와나 分切된 佛石이라도 날 날이 分析考證을 세우는 一方, 廣闊한 百濟遺域에서 隨時로 發見拾得되는 數多한 遺品에 接할 時는 遠近이나 環境을 不顧하고 달랠가 自身이

鑑證分析하여 貴否와 所重值를 評價함을 자못 즐겨 하신 것이다.

平時엔 比較的 寡黙한 性品이나 百濟文化나 古美術에 語尾가 미칠나 치면 벌써 先生의 顔色은 緊張하고 瞳眼은 光彩를 뽐으며 내리꼬이는 歷年과 正確한 考證은 恒時 周圍人을 感銘 肯定케 한다.

實로 先生은 現時點에서 볼때 百濟文化의 保存과 發掘과 其顯揚에 없 어서는 안될 貴한 存在라 稱해서 過讚이 아닐줄 안다. 앞날에 繼續의인 精進있기를 비는 바이다.

乙巳 三月 日

然齊先生과 다운會

李 夕 湖

도리켜보니 先生에 師事해서 나는 曠日彌久 十年에 가까울다보니 이 때 뜨거운 情懷가 이 胸中에 어지럼도록 맴돈다.

그러나 막상 例日과 같이 先生의 美靑年然한(失禮이나) 모습과 朗朗한 聲咳에 接하고 있으면 벌써 先生이 이번 慶事로 말미암아 老期에 드신다고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니 웬일일까?

버림받은 孤兒처럼 冷酷한 구뭇발결에 차이어 이리저리 둘러다니는 百濟의 文化에 心傷하시어 오로지 그 百濟文化의 守護와 그 浴光을 위하 시어 於焉 風雪의 二十餘年을 樂亦其中하고 오신 然齋先生님 慈父와 같으신 先生의 人格도 人格이 러니와 끊임없이 지던 研鑽의 體貼하신 百濟의 참되고 자랑스러운 입김에 우리도 가까이 呼應하고 以心傳心이라 할 까 謙遜이 말해서 類類相從이라 하여 두자 多幸히이 고장의 知性들은 義務感에서 또는 使命感으로 모인것이 「다운會」였다.

다운會에서는 百濟文化 도로찾기 運動의 一環으로 月一回 百濟文化巡禮會를 갖는다. 이 巡禮會는 그 遠近寒暑를 가리지 않으며 先生님을 모시고 꾸준히 繼續해왔다.

어느날은 暴雪속에 山中을 헤메이기도 했는가 하면 어느 때는 暗夜에 등 불도 없이 오솔길을 밤이 새도록 타박거리기도 했고, 또 깊이 쌓인 落葉에 미끄러지며 가파른 高山을 넘으려다 지쳐서 俯仰歎息한 일도 記憶에 生하나다. 이와같이 苦楚가 막심할때마다 우리는 뒷보다 먼저 還曆에 가까우신 先生의 健康에 걱정의 마음이 아니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되려 젊은 우리들의 悲鳴을 비웃으시며 때로는 앞지르기를 二km, 老益莊 하시는 先生을 멀리 黃昏의 山間에 바라보며 『百濟王 萬歲!』를 외쳤다. 그럴수록 우리의 收穫도 많았다. 臨江寺址發掘의 動機를 이룬 考證物發見提示(百濟蓮花紋瓦當 및 土製佛破片)를 嚆矢로, 宮南池의 復興을 또 新元寺境內의 百濟寺址 確認을 그리고 開泰寺의 新羅時代伽藍址를, 百濟王城復元鳥瞰圖를, 迎日樓의 名稱 및 位置正鵠를, 멀리 唐津合德의 百濟農政의 遺跡인 碧骨池復元을 위해서까지 挑戰하여 成果를 거두었다. 其外 發見 發掘한 遺物은 數百點으로 列學할 수 없고 내 고장에 오는 各寺址發掘團에는 感謝慰問班編成의 周旋을 잊은일 없었으며 百濟文化巡禮로 가는 곳마다 文化財의 保護狀態를 살핀 結果 依賴, 說得, 警告를 일삼고 왔으며 其他 이 地域社會의 참된 諸企劃事業에도 많이 參與하여왔다.

乙巳年 初春 於羅城林假寓

然齊先生과 扶餘

李 儀 洙

내가 然齊先生을 처음으로 만나보고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至今부터 二